

에스더

- 1 이 일은 아하수어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어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일백 이십 칠 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 2 당시에 아하수어로 왕이 수산 궁에서 즉위하고
- 3 위에 있는지 삼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 4 왕이 여러 날 곧 일백 팔십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 5 이 날이 다하매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칠일 동안 잔치를 베풀새
- 6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베줄로 대리석 기둥은 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깬 땅에 진설하고
- 7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 8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궁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 9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어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 10 제 칠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므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하여
- 11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못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 12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의 전하는 왕명을 좇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 붙는 듯 하더라
- 13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 14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

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므무간이라)

15 왕후 와스디가 내시의 전하는 아하수어로 왕명을 좇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16 므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어로 왕의 각 도 방백과 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17 아하수어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18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19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대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번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20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무론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21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므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22 각 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2

1 그 후에 아하수어로 왕의 노가 그치매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2 왕의 시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3 전국 각 도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4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5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개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6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7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8 왕의 조명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개의 수하에 속하니

9 헤개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은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례히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10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개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11 모르드개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12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 두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13 처녀가 왕에게 나아가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14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빔을 주관하는 내시 사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15 모르드개의 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가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꿈을 얻더라

16 아하수에로 왕의 칠년 시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17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

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18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
 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
 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 주니라
 19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
 더라
 20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명한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
 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개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좃
 음이더라
 21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키 왕의 내시 빅
 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22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
 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23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3

1 그 후에 아하수에로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2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
 니하니
 3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4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
 입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5 하만이 모르드개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6 저희가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하고로 하만이 `모
 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
 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7 아하수에로왕 십이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
 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십이월 곧 아달
 월을 얻은지라
 8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흠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

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9 왕이 옹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 가는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10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11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12 정월 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13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부쳐 왕의 각 도에 보내니 십이월 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 아이나 부녀를 무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4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15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4

1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으며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2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3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곡읍하며 부르짖고 굵은 베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4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를 벗기 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5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 보라' 하매
 6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7 모르드개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효를 하닥에게 말하고

8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뵈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9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10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고하기를

11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홀을 내어 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12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개에게 고하매

13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5

1 제 삼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2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3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4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5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풀 잔치에 나아가니라

6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7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8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9 이 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10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11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12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 받은 자는 나 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13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14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오십 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6

1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2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3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 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4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르니라

5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 오게 하라' 하니

6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7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8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9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10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11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12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13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14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포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7

1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2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3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5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6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7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앎이더라

8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9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고가 오시 구뎛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칩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 모르드개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8

1 당일에 아하수에로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하고로 모르드개가 왕의 앞에 나아오니

2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3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4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홍을 내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5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6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 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을 참아 보리이까?

7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하므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8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9 그때 시완월 곧 삼월 이십 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 모르드개의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일백 이십 칠도 유대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새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대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10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부쳐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

11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달월 곧 십이월 십 삼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13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 지라

14 왕의 명이 심히 급하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15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 겹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줄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
 라
 17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
 뻘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9

1 아달월 곧 십이월 십 삼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
 라 유대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 날에
 2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왕의 각 도,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
 워 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3 각 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
 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4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
 르드개의 명성이 각 도에 퍼지더라
 5 유대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6 유대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오백인을 죽이고 멸하고
 7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8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9 바마스다와, 아리새와, 아리대와, 왜사다
 10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1 그 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자의 수효를 왕께 고하니
 12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오백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
 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
 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
 한 시행하겠노라'
 13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
 하는 유대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14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15 아달월 십 사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삼백 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 왕의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칠만 오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7 아달월 십 삼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십 사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18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십 삼일과 십 사일에 모였고 십 오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 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십 사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20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무론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
 21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십 사일과 십 오일을 지키라
 22 이 달 이 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23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대로 또는 모르드개의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24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이 유다인을 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25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26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좃차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27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폐하지 않게 하였더라

29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개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30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일백이십칠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31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32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10

1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2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 유대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권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한국어 성경

The Holy Bible in Korean, 1910 translation

Public Domain

Language: 한국인 (Korean)

Contributor: 레널즈, 이승두, 김정삼

2024-11-05

PDF generated using Haiola and XeLaTeX on 18 Apr 2025 from source files
dated 5 Nov 2024

7611292f-ab99-5de2-9efb-8422f9365905